

2000년 자조금정착을 위한 다짐의 말



유 해 익

낙농자조금운영위원(빙그레)

환율이 1,000원대로 언젠가는 인하된다고 가정할 때 미국과 캐나다에서 잉여 우유 수백만톤이 우리시장을 공략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21세기 2000원년을 맞이하면서 낙농을 하는 우리 생산자는 자조금을 또 다시 조성하고 정착하는데 있어 누락자가 전혀없는 일체감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음 직이는 조직 안에서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동참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되고 그래서, 큰 일을 해 낼 수도 있으며 이룩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자랑할 수 있다.

1998년과 금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낙농하는 생산자는 혼연일체를 보였고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자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조성, 정착시킨 성과를 거두었으며 선전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하겠다.

이는 목전에 와 있는 21세기 미래의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전할 말을 역사의 한페이지에 장식할 것이다. 허장하고 장황하게 늘어놓아서 미화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에 있는 데로 기록하고 설명할 것이고 전해주어서 후손들은 판단할

것이다.

IMF라는 경제용어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축산인, 아니 낙농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일년 365일 씬없이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사람은 생소하기 짝이없는 상태에서 10,000불 시대라고 큰 소리만 치다가 경천동지라구나 할까?

'97년 11월에 느닷없이 불청객으로서 찾아든 환란으로 인한 고충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준 한파는 체감하지 못한 못사람에게 실감이 안될 것이다.

우유소비둔화로 인한 체화물량이 16,000여톤이며 적정량은 6,000~7,000톤인데, 연말에 가면 20,000톤에까지 육박할 수도 있었고, 만약 여기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나라 낙농업계는 붕괴되고 지리멸렬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찔하고 암울하였던

것이다.

상황이 급박한 상태에서 농림부는 대응정책으로 유대 5%인하와 체세포와 세균수에 페널티를 가하여 농가의 젖소숫자를 줄여보자는 선고에 우리 낙농가는 또 다시 실망을 가져왔으나 도리가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IMF 환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안심할 수는 더욱 없다. 환율이 1,000원대로 언젠가는 인하된다고 가정할 때 미국과 캐나다에서 잉여 우유 수백만톤이 우리시장을 공략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시대는 새롭게 맞이하게 될 것이고 희망찬 21세기 2000원년을 맞이하면서 낙농을 하는 우리 생산자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단합과 결속으로 권익을

보호하면서 생존권을 찾고자 하는 농축산 계통의 생산자로서는 초유의 자조금을 또 다시 조성하고 정착하는데 있어 누락자가 전

혀없는 일체감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끝으로 21세기에는 선진 낙농으로 지향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모든 낙농을 하는 회원님의 건강을 기원한다. (㉠)

(필자연락처: 0348-958-2586)

지속적 추진으로 낙농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심 우 봉

낙농자조금운영위원(충북)

처음 시작은 많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돌출시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의 부각보다는 현재 우리 낙농가 스스로의 자금을 통한 활동으로 우유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우유에 대한 이미지 효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 낙농자조금사업 첫해로써의 성과는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낙농가의 한사람으로써 긍지를 가진다.

1. 서론

지난 세월을 한결같이 우유와 유제품들을 소비해 주신 소비자분들에게 양질의 우유 및 유제품 생산을 위하여 우리 낙농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알리고, 이러한 우리들의 결실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을 홍보하는 것이야말로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낙농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낙농자조금사업은 이 같은 의미에서 출발하여 첫해를 보내고 있어 지금까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돌이켜 봄으로써 더 나은 발전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현황

전국 약 14,000여 농가 중에서 약 80% 정도되는 약 11,000여 농가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낙농자조금사업은 현재 우유 소비 홍보측면에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약 16천톤 정도 되던 분유 재고량의 감소 및 현재 시유 판매량이 재고없이 소진되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낙농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써 신문, TV, 잡지 등의 광고, 지하철 광고, 우유요리책자 등의 발간 등 수많은 행사들로 우유소비를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사랑의 우유

나누기 운동"은 결식아동, 무의탁 노인 등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금조성과 유업체 및 유가공업체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약 17억 정도로써 정부 보조금 8억을 포함하면, 총 25억원정도의 자금으로 국내에서 올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3. 반성

낙농가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하여 한모임으로써 한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